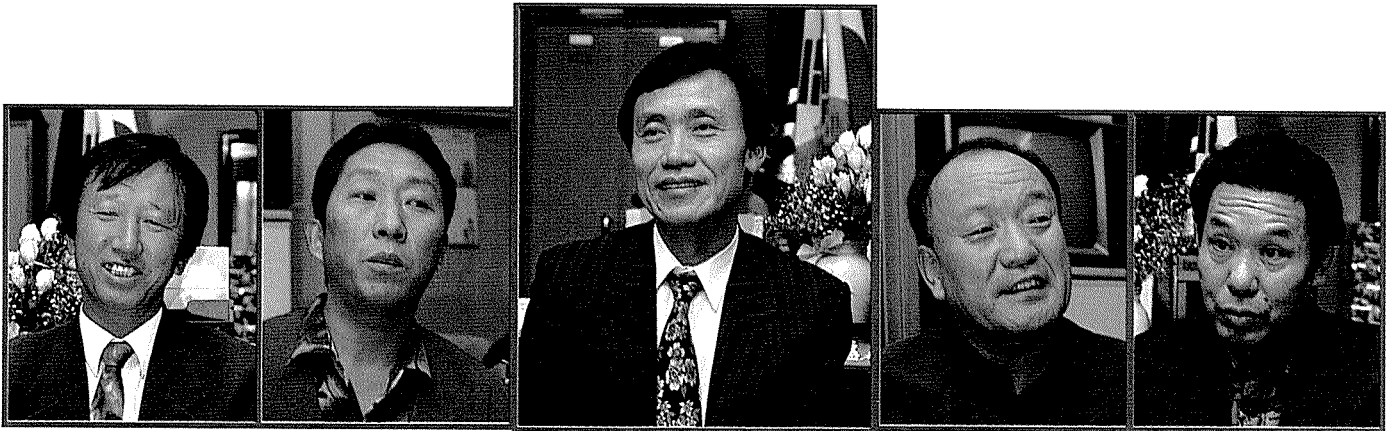


밀고 끌며 앞선 지회를 만든다

인천 지회



박익선 부지회장

양춘석 부지회장

길창덕 지회장

김영 고문

길명진 감사

항도(港都) 인천, 끝없는 서해의 물결이 밀려 오가고 그 물결을 따라 부지런한 삶이 있는 곳. 따라서 그곳엔 언제나 개펄의 흙내음처럼 진한 삶이 있고 활기가 살아 숨쉰다.

그리고 오래전 작은 어촌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은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모든 문물이 처음 발을 딛는 창구로 땃줄처럼 서울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 왔다.

아울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천은 서울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나날이 그 위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천지회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 인천은 국내 6대 도시 안에 드는 거대 도시 그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위성 도시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천 지회(지회장 길창덕)가 창립된 것은 1969년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 인천지회는 순수 제과인의 결정체가 아닌 병과류와 제과를 취급하는 업소들의 모임인 병과(氷餅乾)조합으로 시작됐다. 그후 25여 회원으로 독립해 80년 사무실을 마련하고 간석동을 거쳐 지금의 송의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흔히 '짜다'로 표현되는 인천 지역을 일컫는 말은 수정돼야 한다. 어디 못지 않게 돈독한 회원간의 친목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인천이기 때문이다. 또 인천지회의 활성화에는 이런 각 지부의 활발한 활동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내실있는 운영을 전개하는 상층부의 상호 노력이 밀반침이 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회의 총 회원수는 600여 회원, 독립 당시 25여 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업림잡아 24배 정도 성장한 셈이다. 이에 따라 팽창 일로에 있는 인천의 발전과 많은 회원수로 인해 인천지회는 중구, 서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북구 6개 지부로 세분화돼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지방 자치체처럼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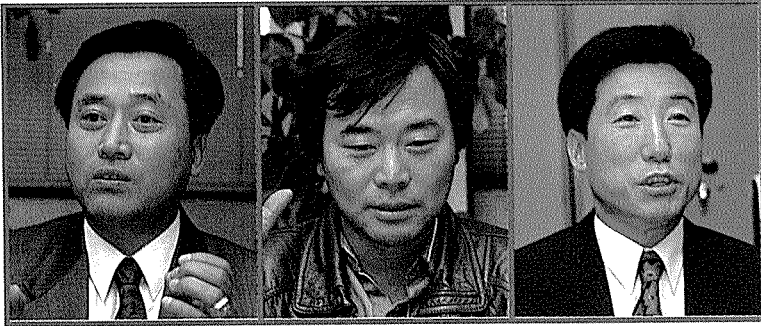
지회의 활성화된 모습은 6개 지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별로 다져진 친목과 지부 활동이 결합돼 곧 인천지회라는 집결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인천을 일컬어 '짜다'라는 표현으로 지역 특성을 설명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지회 친목과 대외 활동을 보노라면 이 말이 수정돼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순박하고 사람 좋은 이들이 제과인 것처럼 인천 제과인만큼 친목이 두텁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도 드물기 때문이다.

원래 인천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중구지부(지부장 이호선)는 타 지부에 비해 29 회원으로 적은 수치만 한달에 한번 회원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업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85년 북구에서 분리돼 8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구지부(지부장 장순환)도 '서인천과 우회'를 조직해 축구, 등산, 낚시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세달에 한번 전 회원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한편 회원 업소가 자율적으로 1~2천원씩 모아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단결을 과시하고 있다.

또 15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구지부(나상현)는 회원간의 친목은 물론 지난 11월



이호선 중구지부장 장순환 서구지부장 나상현 남구지부장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 1회 서울하인즈빵과 전에 2명이 참가, 특수빵 부문과 건과 부문에 나란히 동상을 차지해 전국에 인천지역의 기술 수준을 대외에 알리기도 했다.

남구에서 86년에 독립 120여 회원을 지닌 남동구지부(지부장 조영규)는 회원의 단결을 과시하듯 제 1회 회장기 쟁탈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간식, 만수, 구월동에 소재한 3곳의 양로원을 방문해 온정의 손

하는 북구지부(지부장 송성대)는 '과업번영회팀'과 '그린비팀'이 활성화돼 있어 체육대회를 통한 친목의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올해 개최된 제 2회 회장기 쟁탈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부 활동으로 인천지회가 선정한 우수 지부로 뽑히기도 했다.

이상에서 알수 있듯 각 지부의 친목과 활발한 활동이 활성화된 인천지회의 토대라 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인천지회도 지난 93년도부터 회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해 각 지부간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5개 분과위원 체계를 설치, 완벽한 행정 체계와 조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인천제과협회공인회원업소'란 문구가 새겨진 비닐 봉투를 제작, 싼 값에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인천지회는 크지는 않지만 내실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 넓은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나 공동 구매 등을 전개해 회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타 지역과 친목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기술인·업주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흔히 열매 좋은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듯 인천지회의 활성화에는 각 지부의 활발한 활동과 친목에 그 뿌리가 있다. 그리고 각 지부 못지 않게 회원 이익을 위해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힘쓰는 인천지회의 노력이 상호 조화를 이뤄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그 중요성과 임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인천지회에 우리가 앞으로 변치 않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글 박종선>



조영규 남동구지부장 김송준 동구지부장 송성대 북구지부장

길을 펼치고 있다.

23개 회원으로 가장 적은 회원이지만 동구지부(지부장 김송준)역시 친목과 대외 활동면에서는 타지부에 뒤지지 않는다. 회원 업소마다 돌아가며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관내 경찰서의 의경과 학생을 방문해 위로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200여 회원으로 가장 큰 조직을 자랑



윤춘락 이사 이명만 조례위원장 탁종대 기획위원장



임성모 조직위원장 이세돈 홍보위원장 이인수 사무국장 이창호 북구사무장 양희봉 중구사무장